Chamber Symphony No. 1, Op. 9

- □□

정보

개요
곡명: Chamber Symphony No. 1 in E major, Op. 9
원표제: Kammersymphonie für 15 Solo-Instrumente
작곡가: Arnold Schoenberg (1874–1951)
작곡 시기: 1906년 3월경 –7월 25일
초연: 1907년 2월 8일, 빈 Musikverein. Rosé Quartet와 빈 궁정오페라 관악 앙상블 연주
편성: 15개의 독주 성부를 맡은 실내악 앙상블

Arnold Schoenberg의 Chamber Symphony No. 1은 현악 오중주와 열 개의 관악 성부가 각자 독주자처럼 움직이는 단일 악장 작품이다. E장조의 중심은 남아 있지만 4도 화음, 온음음계와 극심한 반음계가 그 중심을 끊임없이 밀어낸다. 느린 도입 뒤에 소나타적 제시, 스케르초, 발전부, 느린 부분, 재현과 피날레의 기능이 쉼 없이 포개진다. 따라서 이 곡은 ‘다섯 악장 ’이 아니라 한 악장 안에 교향곡의 시간과 실내악의 책임을 동시에 압축한 작품으로 들어야 한다.

IMSLP: Chamber Symphony No. 1, Op. 9

Wikipedia: Chamber Symphony No. 1 (Schoenberg)

출판 정보와 원전

자필 정서 총보의 끝에는 1906년 7월 25일 Rottach-Egern에서 완성했다는 날짜가 남아 있다. Universal Edition의 초판 총보와 파트는 표지와 저작권을 1912년으로 표시하지만 , 작품 아카이브는 98부가 1913년 1 월 25일 실제 발행되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1912년은 판권 표기, 1913년 1월은 실물 발행 시점이다. 후대 판매 목록에서 원전을 Op. 9a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작곡가의 원전 표제는 Op. 9다.

이 작품에는 여러 후대 판본이 연결된다. 1914년의 초기 관현악 편곡, 1923–24년 연구용 총보, 1935년 대관현악판 Op. 9b는 각각 다른 편성 목표를 가진다. 특히 Op. 9b는 원전의 교정판이 아니라 대형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이며, 1935년 12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Schoenberg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원전의 성부 노출과 Op. 9b의 풍부한 음향을 같은 판본의 규모 차이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소요 시간

공식 작품 안내는 약 22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녹음은 템포와 앙상블의 선택에 따라 약 19분 40초에서 27분 가까이까지 벌어진다. 음반의 다섯 트랙 분할은 청취용 색인일 뿐 공식 악장 수가 아니다. 빠른 구간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복합적인 대위가 뭉개지고, 느린 부분을 과도하게 늘이면 단일 악장의 긴장이 끊긴다.

편성

총보는 15개의 독주 성부를 요구한다. 악기 전환 표기는 판본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아래는 원전 파트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목록이다.

목관: Flute(피콜로 겸함), Oboe, English horn, D 또는 E-flat piccolo clarinet, A 또는 B-flat
clarinet, B-flat bass clarinet, Bassoon, Contrabassoon
금관: 2 Horns in F
현악: Violin I, Violin II, Viola, Cello, Double bass
없는 악기: 타악기, 하프, 건반 악기는 없다.

각 파트는 합주 속에서 독립적인 선율과 리듬을 맡는다. 대규모 교향곡처럼 현악군을 겹겹이 늘리는 대신, 한 사람이 한 성부를 책임지기 때문에 텅잉 ·활쓰기 ·다이내믹의 작은 차이가 곧 형식의 윤곽이 된다. 초판에는 큰 홀에서 연주할 때 현과 관악을 증원할 수 있다는 지시가 있지만, 그것은 15인 원전과 별도의 실연 조건이다.

단일 악장 속 다섯 기능

Schoenberg의 후기 자기 분석과 Alban Berg의 1918년 분석은 이 곡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눈다. 아래의 다섯 기능은 교향곡적 청취를 돕는 지도이지, 다섯 개의 독립 악장 표지가 아니다.

도입과 소나타적 제시

처음 네 마디는 느린 호흡으로 문을 열고, 제 5마디에서 두 호른이 상승하는 4도 모티프를 내놓는다. 이후 목관과 현악이 짧은 동기를 빠르게 이어받으며 제시부의 재료를 만든다. Schoenberg가 1911년 화성론에서 설명한 4도 화음은 장식적인 색채가 아니라 화성 구조와 선율 윤곽을 함께 조직한다. E장조의 귀환은 남아 있지만, 전통적인 3도 중심 화성만으로는 이 음향을 설명하기 어렵다.

Walter Frisch가 표시한 첫 큰 경계는 제 1마디에서 시작해 133마디 부근의 스케르초 기능으로 넘어간다. 이 구분은 악보를 읽는 데 유용하지만 , 실제 연주에서는 동기가 끊기지 않고 다음 성격으로 변한다. 작은 편성의 장점은 각 악기가 이 변화를 직접 보여 준다는 데 있다.

스케르초 기능

빠른 리듬과 짧은 음형이 목관 ·호른 ·현악 사이를 번갈아 튀어 다니며, 전통적 스케르초의 민첩함을 단일 악장 안에 만든다. 제시부의 재료가 다른 악기와 다른 음역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어떤 파트가 주도하는지보다
모티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듣는 편이 구조를 파악하기 쉽다. 관악 열 성부와 현악 다섯 성부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 구간은 단순한 빠른 음표의 연쇄로 들린다.

발전부와 Adagio 기능

제 160마디 부근부터는 동기의 조각들이 더 촘촘히 결합하고, 이어 느린 서정성이 전면으로 나온다. 이 중심부는 전통적인 발전부와 느린 악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Frisch의 경계 제안은 제 280마디 부근에서 다음 성격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Berg는 이 부분을 교향곡의 느린 악장 기능으로 읽으면서도 , 여러 주제가 계속 변형되는 소나타적 전개의 일부로 남겨 둔다.

Schoenberg의 화성은 여기서도 완전히 무조로 흩어지지 않는다. E장조를 암시하는 귀환과 온음적 ·반음계적 진행이 겹치며, 긴 선율의 방향과 압축된 동기의 밀도가 동시에 유지된다. 느린 부분을 독립적인 명상으로 떼어 내기보다, 앞의 추진이 다른 시간감각으로 변환된 것으로 듣는 것이 자연스럽다 .

재현과 피날레 기능

제 368마디 이후에는 앞서 나온 재료가 재현의 방향으로 모이고, Frisch가 제안한 제 378·415·435마디 부근의 경계들이 종결을 준비한다. 재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주제와 화성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압축이다. 마지막에는 15명의 독주 성부가 다시 교향곡적인 덩어리를 만들지만, 개별 악기의 책임은 끝까지 남는다.

4도 화성과 양식의 문턱

작품의 4도 모티프는 후기낭만의 화성 팽창과 이후의 현대주의 사이를 잇는다. Schoenberg가 남긴 1906년 스케치에는 3도 기반의 조성 체계를 4도의 선율 ·화음으로 넓히는 실험이 보인다. 이 작품을 무조 또는 12 음기법으로 부를 수는 없다. E장조 중심, 기능적 귀환, 온음계와 반음계의 긴장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4도 화음이 표면의 색채를 넘어 구조의 골격이 되면서, 이후 조성 이탈을 향한 사고가 분명히 드러난다.

Schoenberg는 훗날 Op. 9를 자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회고했다. 그 회고는 후대의 자기 해석이므로 1906년 작곡 당시의 의도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의 증거는, 큰
교향곡의 형식 기능을 15개의 독주 성부와 단일한 연속 시간 안에 넣었다는 사실에 있다.

초연과 수용의 맥락

1907년 2월 8일 빈 Musikverein에서 Rosé Quartet와 빈 궁정오페라 관악 앙상블이 이 곡을 연주했다. Anton Webern은 1912년 회고에서 이 초연이 지휘자 없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정식 문서에 흔히 적히는 ‘Schoenberg 지휘 ’라는 요약은 이 가까운 시기 증언과 충돌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휘자 없는 초연은 15 명의 독주자가 공동 호흡을 맞출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현대의 지휘 연주를 배제하는 규칙은 아니다.

1913년 빈의 이른바 스캔들 콘서트에서 Op. 9도 적대적인 반응을 받았지만, 공연 중단과 폭력의 직접적인
계기는 뒤이어 연주된 Berg의 가곡들이었다 . 이 작품 하나가 폭동을 일으켰다고 쓰면 당시 프로그램의 사건 순서를 왜곡한다. 초기 비평의 논쟁성과 이후 레퍼토리 정착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연주와 판본의 선택

Schoenberg는 1948년 인터뷰에서 실내교향곡은 큰 홀을 위한 작품이 아니며, 편성이 곧 내용 ·형식 ·표현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선명한 독주 성부가 들리는 작은 공간이 원전의 의도와 잘 맞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초판의 증원 지시와 1914년 ·1935년 편곡은 더 큰 공간에서 음악을 전달하려는 실제적 선택이었다 .

지휘자의 유무는 이분법이 아니다. 무지휘 연주는 서로의 호흡과 리듬을 현장에서 조정해야 하며, 지휘 연주는 빠른 전환과 큰 형식의 시선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 Kathleen McGuire의 녹음 비교는 템포, 박자, 균형, 판본 선택이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원전에서는 관악 열 성부가 현악을 덮지 않도록, 음량보다 발음과

공간 배치가 먼저 정돈되어야 한다.

주요 레코딩

Birmingham Contemporary Music Group·Simon Rattle (1993, EMI): 1993년 10월 9–10일 Birmingham Symphony Hall에서 원전 Op. 9를 녹음했다. 약 21분 50초의 비교적
표준적인 시간으로, 각 독주 성부의 긴장과 교향곡적 큰 단락을 함께 들을 수 있다. Andrew Clements는 Rattle의 2009년 Op. 9b보다 이 원전 녹음이 더 힘줄 있는 강도를 낸다고 평가했다. MusicWeb 녹음 정보 ·리뷰, The Guardian 비교 리뷰
Orpheus Chamber Orchestra (1989, Deutsche Grammophon): 무지휘 악단의 협력적 리허설 방식을 들을 수 있는 원전 녹음으로 약 21분대다. 악단의 공동 결정이 빠른 전환을 어떻게 정돈하는지 살피기 좋지만, 무지휘라는 사실만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자동 보증하지는 않는다. Deutsche Grammophon 전집 정보
Pierre Boulez·Ensemble intercontemporain: 약 19분 40초의 짧고 집중된 해석으로, 15명 편성의 날카로운 발음과 현대 앙상블의 정확성을 전면에 둔다. Qobuz 음반 서지
Jean Dervaux·Concerts Pasdeloup (1949): 초기 장기 녹음의 한 사례로, 작품이 현대음악
레퍼토리로 정착해 가던 시기의 음향과 템포 감각을 비교할 수 있다. Arnold Schönberg Center
음반 자료

주요 자료

Arnold Schönberg Center 작품 개요
Arnold Schönberg Center, 15인용 원전 자료
Universal Edition 원전 총보
Walter Frisch, The Early Works of Arnold Schoenberg Kathleen McGuire, Journal of the Conductors Guild Arnold Schönberg Center, 1935년 Op. 9b 자료